



독서치료 소개하는

‘마음 아픈 이들은 남구도서관으로 오세요’. 이것은 부산의 남구도서관이 지난 4월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 건물 로비에서 독서치료 도서전시회를 마련하면서 내놓은 타이틀이다. 이 도서관은 올해부터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 도서를 선정하여 별도의 공간에 비치,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박한 현실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책을 통해 돌아보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것을 권유한다.

도서관이 이처럼 ‘치료하는 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경남의 창녕도서관이 《마음을 치유하는 책들 모음》을 펴낸 것이 2002년이었고, 울산남부도서관이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도서목록》을 꾸며낸 것이 2003년이었다. 이들 도서관은 목록에 올라 있는 ‘치료하는 책’을 별도의 서가에 비치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울산남부도서관은 도서관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주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의 양산도서관도 올해 같은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이와 같은 일은 모두 2000년대에 들어와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다.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최근에 접한 소식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도서관의 사서진과 서울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여 관련 세미나를 열고 있다는 것이다. 90여 명이나 모인다고 하니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앞으로 도서관과 사서직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조짐으로 보인다.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은 비단 도서관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민간의 교육기관이 오히려 더 열성적이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독서치료사’ ‘독서치료전문가’ ‘아동독서치료사’ 등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분포는 전국적이다. 내가 있는 지역에도 네 곳이나 된다.

책과 모임들

한편 자격증 같은 것과는 무관하게 참여자 자신의 문제 해결과 치유를 목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도 있다. 대전의 신성회가 대표적이다. 신성회의 대표 이영애는 《책읽기를 통한 치유》(홍성사, 2000)의 저자이며 자신이 책을 통해 스스로 치유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확장하여 모임을 인도하고 있다. 이영애와 같이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를 ‘상처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라고 한다. 이런 배경을 가지면 모임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그동안의 관찰로 보면 이영애야말로 이 분야에서 진정한 실천자이며, 우리 현실에 맞는 독서치료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그 비결은 기술적인 측면에 있기보다는 인간의 이쁨에 대한 동정심과 봉사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신성회는 1991년에 시작하여 14년간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모임은 주로 가정 생활과 정신건강에 관심을 둔다.

독서치료 활동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조직이 있다. 바로 한국독서치료학회이다. 이 학회는 2003년 3월에 출발한 학회인데도 벌써 《독서치료의 실제》(학지사, 2003)를 공동작업의 결과물로 내놓고 있다. 학회의 구성원들은 학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이전부터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해왔으며 이미 《독서치료》(학지사, 2001)를 내놓은

- 《책읽기를 통한 치유》 이영애 지음 | 홍성사 | 174쪽 | 값 5,600원
- 《독서치료의 실제》 김현희 외 지음 | 학지사 | 586쪽 | 값 20,000원
- 《독서치료》 독서치료연구회 지음 | 학지사 | 326쪽 | 값 14,000원



바 있다. 학회장 김현희의 리더십이 돋보이며,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이제 나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서치료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한다. 우선 부산대학교에 위치해 있는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이 있다. 이 연구실은 독서치료 영역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발전시키고 있는 대학원 학생, 관심 있는 교수와 도서관 사서가 주요 구성원이다. 근래에는 주로 정신분석학 관련 책들을 읽고 토론하며 문헌정보학 입장에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독서와 토론의 결과를 사서직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관계 설정으로 연결시켜 보려는 것이다.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는 독서치료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나는 이 과정에 외래교수 다섯 사람과 함께 참여한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일반대학원 과정과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과정에 독서치료 강의가 매 학기 번갈아 가며 개설된다. 강의는 주로 내가 담당하고 있다.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독서치료 관련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한 가지는 치유의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방법'과 '기술' 측면을 경시하지 않는 선에서 거기에 지나치게 또는 전적으로 매달리는 경향을 경계한다는 의미이다. 그 원리는 명상이나 요가에서와 같다. 다른 한 가지는 '독서치료사'라는 표현을 편의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삼가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치료 모임의 '진행자' 또는 '인도자presider' 정도의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사실 독서치료 모임에서 '치료사'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독서행위 자체라고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과정에서 심리적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자극되어 의식의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내면과 만나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되고 아픔의 완화와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내 주변에서 진행되어온 연구와 실험의 결과가 이번에 한울의 '독서치료연구시리즈'(전5권)으로 나오게 되었다. 《독서치료와 도서관의 역할》(신주영 지음), 《독서치료와 공공도서관 서비스》(송영임 지음), 《어린이의 상한 마음을 돌보기 위한 독서치료》(김민주 지음), 《성인아이 문제와 독서치료》(김경숙 지음), 《대학생의 '문제유증'와 독서치료》(김수진 지음)가 그 내용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풀면서 소개한 책이 모두 8권이다. 아마도 이것이 독서치료의 '방법'과 '기술' 분야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더 좋고 풍부한 독서치료 과정을 만들어 가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

이 글을 쓴 김정근은

도미니칸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토론토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육학을 공부하였다. 지금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이며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의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의 장이 될 수 있는가>,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이 있다.

